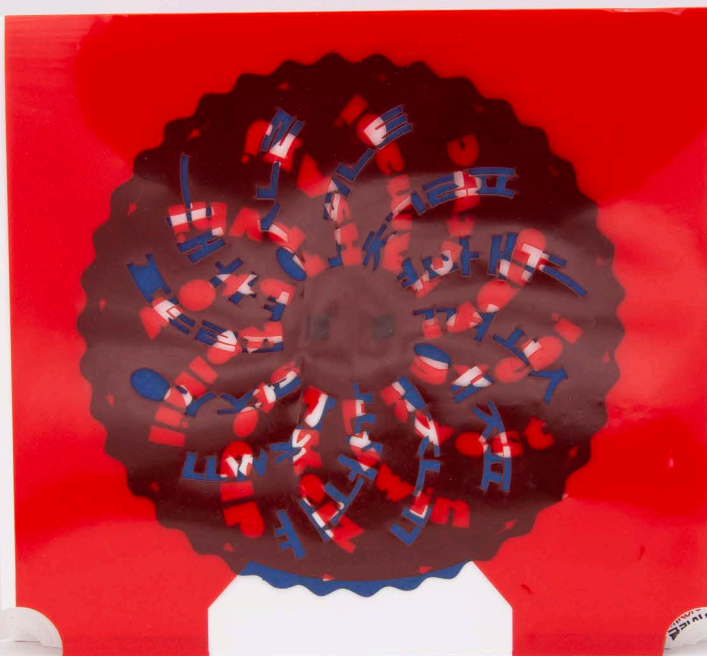


K
O
P
E



E
N
G
L
I
S
H

Two different languages MIXED in my head.





섞여있는 languages 언어

Knowing two different languages also makes you think in two languages. I think in Korean + English
두 언어를 알고 있으면 생각도 두 언어를 사용해서 생각하게 된다. 나는 한국어와 영어를
and that is why I use two mixed languages when I speak. Certain bits of memories are remembered in
섞여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에도 이 두 언어를 섞여서 말을 하게 된다.
Korean while others are in English. When an input is made in my head the output also
머릿속에 한국어로 정보가 입력되면 표현할 때도 한국어로 표현하게 되고,
corresponds to the same language input.
영어로 저장된 기억은 표현할 때도 영어로 표현하게 된다.

One of these experiences was when I was at school. At my school, you need an access code to enter but when I
학교 건물 안에 비밀 번호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나는 그 번호를 한국어로 기
was given the code number I had remembered it in Korean. This one time when my classmate had asked me the
억하고 있었다. 한번은 친구가 나에게 비밀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기억하
code I took a long while to tell her. I couldn't tell her right off away because in my head I had to
고 있던 번호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나는 빨리 대답할 수가 없었다.
translate the numbers into English even though I knew what the numbers were.

구일칠육이
nine one seven six two

한글로 생각하게 된다. 비밀번호 91762 숫자를 누를 때 머릿속으로도
이
영
문
자
로
표
현
하
는
데
시
간
이
걸
렸
기
때
문
에
나
는
빨
리
대
답
하
는
수
가
없
었
다.

"What's the code for the computer room?"
"eight four six four"
"Thanks!"

컴퓨터 교실 비밀번호는 영어로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팔사육사'로 기억하는게 아니라 영어,
에잇 포 식스 포'로 기억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도 머릿속에서
한글로 숫자를 세는게 아니라
영어로 숫자를 세면서 누르게 된다.

From 7-14

In my childhood, I used to make my own envelopes out of English newspapers when giving letters to my friends. For the envelopes I used the parts of the newspapers with no images. English sentences seemed more beautiful to me. I used pages without the images. Back then, I couldn't understand the English newspaper but English seemed very intriguing to me. For me, the newspaper was pages of beautiful patterns rather than of a different language.



10 刻片

또 한번은 미국 친구가 한글을 가지고 와서
글씨 모양이 마음에 든다면서 무슨 글씨
인지 물어봤었는데 그 글씨는 **발** 이었다.

그 친구는 **발** 이라는 글씨를 자기 아이디어 스
케치북에 붙여놓고 다녔는데 매번 그 글씨를 볼 때 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FOOT